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엡4:17-24)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을 보면, 전문가가 음식과 경영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준대로 하지를 않아서 결국 장사가 안되고 심지어 폐업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 무엇이 변했을까? 전문가는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음식에 대한 열정과 손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3년간 눈물로 헌신하며 말씀을 가르친 애정이 가득한 교회였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버리고 말았다.(엡4:18)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데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줄대(wheel spine)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줄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사야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수천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text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context에 가까운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이야기는 문제 해설집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자신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낼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고 또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

엡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썩어져 간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부패시킨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옛 습관(죄)을 버리지 않으면, 마치 상자 안에 있는 굴 하나가 썩어서 다른 굴까지도 상하게 만들 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죄로 얼룩진 옛 습관을 버려야 한다.

또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비성경적인 문화도 버려야 한다. 특히 할로윈데이는 귀신을 위한 날로부터 시작하였다. 할로윈데이는 대표적인 반성경적 문화이다. 악령에게 재물을 바치는 모습도 반성경적이고, 귀신을 두려워해서 마치 자신을 귀신의 모습으로 꾸미는 것도 반성경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10월31일 할로윈데이로 알고 있지만, 그 날은 ‘종교개역기념일’이기도 하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팔며, 커다란 성전과 탑욕에 눈멀어 있는 성직자를 바라보며,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자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앞에 붙인 사건으로 종교 개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말씀(sola scriptura)를 외쳤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로워야 한다

엡4:23-24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하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단순히 읽고 지식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신앙의 바른 줄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엡4:17-24)

1. 마음으로 만나기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경배와 찬양(Worship)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3. 말씀 나누기 (Word) : 오늘의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 1)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때의 열정이 어느정도였습니까? 혹시 지금과 변한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 2)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며 살았을 때의 유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 3) 이번주 토요일은 할로윈데이이자 종교개혁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더욱 의미있고 성경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를 나눠보세요.
- 4)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신앙의 변화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보세요.
- 5) 이번 주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할 것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4.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Work of Prayer)

- 1)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 2)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 청년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넘치게 하소서
 - 대학을 준비하고 시험을 앞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